

박병두 소설가 기획·전남도 후원
'전라도 가는 길, 생명의 땅 남도기행'
시인·소설가 등 24명 문인들 참여
22개 시·군 각각의 사유·서정 담아



시인, 소설가 등 24명의 문인들이 전남의 22개 시·군을 직접 답사하며 느낀 지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담은 '전라도 가는 길'이 최근 발간됐다. '화순 적벽' (왼쪽)과 '당갈밭'.



<박병두 작가 제공>

'생명의 땅' 전라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오롯이

"이번 책은 '생명의 땅, 남도의 기행'이라는 기획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 작가들을 저자로 내세운 것은 우리 내부에서 보는 시선과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가들이라 느낌이나 체험이 다르겠지요."

박병두 소설가는 '전라도 가는 길, 생명의 땅 남도기행'을 기획하게 된 계기를 그렇게 말했다. 집필에는 시인과 소설가 등 모두 24명의 문인들이 참여했다. 박 작가가 먼저 전남도에 기획 취지를 제안하고, 전남도의 후원으로 책이 발간됐다.

박 작가는 "문인들의 시선을 통해 전라도의 멋과 맛, 가을 만한 여행지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며 "전남의 22개 시·군을 한 명의 문인이 담당해 저마다의 관점과 시선, 감성으로 전남에 대한 사유나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화된 세상에서 한 발 비켜서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이 책이 계기가 돼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아름다운 땅 전라도를 찾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했다.

참여 작가 면면은 다양하다. 오늘날 풍성한 한국 문학을 일궈왔던 이들이 망라돼 있어 각각의 글을 통해 남도의 서정과 색다른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시인 고재중(곡성)을 비롯해 박재구(순천), 김구술(무안), 나희덕(고흥), 문호지(영암), 송소영(장흥), 신달자(강진), 오세영(장성), 유자호(구례), 이경철(함평), 이승하(진도), 장석주(해남), 최문자(광양), 허영자(완도), 허형만(목포), 홍신선(신안)이 포함돼 있다.

소설가로는 박병두(서문) 외에도 권지예(여

수), 박상우(나주), 전경린(영광), 정찬주(화순)가 있으며 문학평론가 이경철(담양), 박해현(보성)도 참여했다. 예술인 박병성은 전국체전 문화행사 등을 모티브로 글을 썼다.

이번 책이 일반 여행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색다른 글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을 업으로 삼아온 문인들에게는 저마다 문제가 있는데, 특유의 문체미학은 이색적인 글맛을 선사한다.

또 현장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감성과 특유의 해안이 담긴 인문적 통찰을 접할 수 있다. 아름다운 풍광과 그것과 매치 된 문화유산, 인간에는 전라도가 왜 생명의 땅인지를 오롯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박익태 전남도 관광과 주무관은 "문학인들의 글을 통해 관광 전남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진행했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24명의 작가들이 각각의 지역을 맡아 자신들만의 감성과 시각으로 '생명의 땅' 남도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책이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의 예리한 인문학적 사유가 담긴 여행 에세이는 한 편 한 편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차례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문인, 가보고 싶은 지역을 찾아 먼저 읽어두 무방하다.

신달자 시인은 대학에 이력서를 내고 힘들었던 때 강진을 찾았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느끼며 무조건 달려갔던 곳이 강진이었다. "아아 강진의 청자 빛이 날 불렀구나... 그냥 푸른색인데 깊은 대화가 몇 세기 지나간 관계의 소통처럼 느껴졌다"고 회고

한다.

최문자 시인은 광양의 풍광을 이야기하며 오래 전 내적 고통의 시간을 꺼낸다. 그는 "그해 어떤 사람을 생으로 뱉아낼 수 없어서 생으로 사냥기 하나 뱉아내고, 치통을 견디다 못해 전라도로 쫓겨났을 났었다"고 회고한다. 광양 10만 평의 매화군락지 흥성리 매실가, 섬진강과 어우러진 매화와 마을에 대한 단상은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전한다.

박상우 작가는 특유의 소설가 문체로 나주 혁신 도시를 풀어낸다. 목장내아를 비롯해 백호문화관, 북암리 고분전시관 같은 문화자원 외에도 문예위 등 공공기관이 자리잡은 과거와 오늘의 나주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책은 인터넷 전자도서로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크고 작은 물살의 일렁임, 그 파동의 신비

아트그룹 타래 '水波-물의 파동' 전
5월 12일까지 영산강문화관 2층

무심히 바라보는 물은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유심히 물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일렁임을 느낄 수 있다. 물결이 다른 물결을 만나 변화기도 하고 한데 어우러지기도 한다. 흔히 물의 파동을 '수파(水波)'라고 한다. 수파의 본질은 일정치 않다는 것, 고정돼 있지 않다는 데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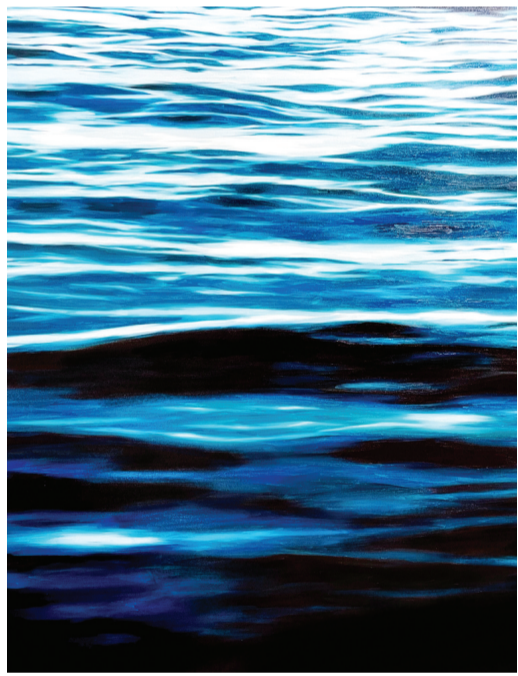
파동, 즉 수파를 모티브로 하는 전시가 열린다. 아트그룹 타래가 영산강문화관 2층 기획전실에서 오는 5월 12일까지 진행되는 '水波-물의 파동'이 그것.

타래는 실타래가 얽혀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조선대 서양화와 동아리 모임 명칭이다. 이리저리 얽힌 실타래처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들의 작품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시에는 김예영, 박나현, 박예루, 박민서, 정희망, 안주현, 임정현, 조하나, 남민지, 이슬지, 장은서, 전재희 등 12명 신진작가들 작품이 출품됐다.

박나현 타래 회장은 "이번 전시는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 작가들도 사회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자유롭게 변화하며 저마다 재능을 풀어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물이 지닌 정체성, 본질을 탐색한 작품들을 통해 누구에게나 있는 '파동의 세계'를 사유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하나의 '일렁이다'는 깊고 신비로운 바다의 모



조하나 작 '일렁이다'

습을 초점화했다. 잔잔하지만 파동을 억누르고 있는 수면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돈다. 고요한 듯 고요하지 않은, 정지된 듯 정지되지 않은 물결이 예사롭지 않다.

이슬지의 '수(水)의 시집'은 시작하면서도 경쾌하다. 수초와 물이 만나 어우러진 풍경은 태고의 신비를 환기한다. 물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생명을 품어 안은 모성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물살에 흔



이슬지 작 '수(水)의 시집'

들리는 수초의 자연스러운 미동은 생명의 역동성을 환유한다.

이현정 과정은 "얽매인 실타래와 자유분방한 물살이 만나 연출하는 풍경은 자못 이색적인 시너지를 낳고 있다"며 "청년작가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일렁임'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

아트인뮤직,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애니메이션이라는 붓과 언어로 현대를 그리는 화가이자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초속 5cm',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등 흥행작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려 왔다. 제40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각본상과 LA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상 등을 석권하며 애니메이션 명장으로 부상했다.

아트인뮤직이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를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4월 용인포은아트홀을 비롯해 5월 대전예술의전당, 6월 울산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전국 투어 일환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1부는 '초속 5cm' OST 'Cherry Blossom', '날씨의 아이' 중 '바람의 목소리', '불꽃축제', '그랜드 이스케이프', '팬텀' 등 애니메이션을 수놓았던 오리지널 트랙들로 채워진다. 이어 2017년 개봉한 '너의 이름은' 중 '꿈의 등불', '미츠하의 등꽃'을 비롯해 '이토모리 교교', '전전전세', '스파라', '아무것도 아니야' 등이 레퍼토



보컬팀 '보이스윙'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리에 있다.

2부는 지난해 3월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이 장식한다. OST '두사람의 만남'부터 '폐허가 된 온천마을', '드라이브', '신칸센 여행', '폐 유원지' 등 작품 속 명장면을 환기시키는 테마곡들이 울려 퍼진다. 이 밖에도 '언덕 위의 요석', '기도', '문단속', '저 너머 아득히'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지휘는 임동국이며, 보컬에 보이스윙이 협연하며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할 예정이다.

VIP석 11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전국 투어 런칭 기념 VIP석, R석 35%, S석, A석 30% 할인).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정아 피아노 독주회 '파리에서 온 편지'

26일·5월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파리로 이주했던 쇼팽,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던 드뷔시와 라벨은 모두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19세기 음악가들이다. 이들은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야상곡, 모음곡, 협주곡 등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다.

T&T예술기획이 김정아(사진) 피아노 독주회 '파리에서 온 편지'를 오는 26일, 5월 21일 각각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

26일은 쇼팽의 피아노 곡들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피아노 협주곡 1번 로망스'를 비롯해 '빛방울 전주곡 D장조 Op.28 15번', '피아노 소나타 2번 중 장송행진곡' 등을 연주한다.

네 편의 야상곡 레퍼토리로 울려 퍼진다. 쇼팽은 아일랜드 작곡가인 존 필드가 만들었던 음악 형태를 변형시켜 야상곡으로 완성, 평생 수많은 야상곡을 남겼다. '야상곡 B플랫장조, Op.9 1



번', '야상곡 E플랫장조 Op.9 2번', '야상곡 C단조 Op.48 1번', '야상곡 F장조 Op.48 2번'을 연주한다.

이 밖에도 5월 21일에는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아라베스크 1번',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드뷔시 '작은 모음곡'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행사를 기획한 T&T예술기획 김선철 작곡가는 "쇼팽의 피아노 곡들은 '발라드를 처음으로 음악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레퍼토리들이 많다"며 "무한한 열정과 기쁨, 낭만이 깃들여 있는 쇼팽의 곡들이 오늘 날 클래식 관객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새끼 꽃게는 튼튼한 등딱지를 가질수 있을까

안오일 작가 장편동화 '딱지 딱지 등딱지' 펴내

"아픈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쓰고 싶었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바다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오염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안오일 작가는 장편동화 '딱지 딱지 등딱지' (온서재)를 펴내게 된 계기를 그렇게 말했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작가에게 바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광주에 거주하면서도 답답할 때면 가까운 바다를 찾아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폐수, 생활쓰레기로 병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탄산염 이온이 점점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갑각류 껍데기 생성에 중요한 화합물이 바로 탄산염이온이다.

안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등딱지가 생기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새끼 꽃게 '왕딱지'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왕딱지의 꿈은 아빠처럼 멋지고 튼튼한 등딱지를 갖는 것이다. 왕딱지의 여정을 통해 독자들은 아픈 바다를 간접적으로나마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딱지 딱지 등딱지 크고 멋진 우리 집 딱지 딱지 등딱지 천하무적 우리 힘"



게들은 그렇게 등딱지를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을 펼친다. 그것은 곧 '크고 멋진 우리 집'을 보호하는 일이자 모든 생명의 보고 '바다'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작가는 "왕딱지와 친구들의 아픔을 보면서 바다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한다"며 "우리의 작은 생각, 행동 하나가 모여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한편 안 동화작가는 시집 '화려한 반란', '그래도 괜찮아' 등과 청소년 소설 '녹두밭의 은하수', 동화집 '우리들의 오일 뉴스', '으라차차 길고양이 나간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